

IFS 국가 정책 제언 대만 해협의 복합 위기화와 한반도에 대한 파급효과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구민교 교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윤석준 박사



1 대만 해협 이슈의 복합 위기화



중국과 대만의 군비 경쟁

- 대만 해협 위기는 “상대의 숨통을 조인다”는 중국의 “아나콘다 전략”과 “건드리면 찌른다”는 대만의 “고슴도치 전략”이 맞서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음
-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인근 해역과 공역에 90척 이상의 군함과 해경선 및 고고도 정찰 풍선을 배치해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였으며, 이는 1996년 대만 해협 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해상 작전으로 평가됨
- 중국군은 대만과 제1도련선을 목표로 서태평양에서 항공모함 훈련 등을 통해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중국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추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섬 상륙 훈련과 중간선 상시 침범을 통해 대만과 주변국을 압박하고 있음
- 전임 차잉원 총통에 이어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도 양안 갈등 증폭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복합 위기화

- 대만 해협은 중국과 대만 간 이슈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모두에 전략적 및 외교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임
- 1979년 대만관계법 이후 가장 중요한 관련 법률로 평가 받는 미국의 대만여행법(2018년)과 그에 따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등으로 미중 긴장이 격화됨
- 대만 해협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바시 해협과 미야코 해협은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교차하는 주요 지점으로, 필리핀은 바시 해협 인근 루손 섬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과 미야코 해협의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2 중국의 회색지대/하이브리드 전술

아나콘다 전략 대 고슴도치 전략

- 대만 해협은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으로 대규모의 군사력과 재래식 및 첨단 무기가 한반도 이상으로 집중된 지역임
- 중국은 해군력(항공모함, 잠단 잠수함), 공군력(J-20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 사이버전 능력 등의 증강을 통해 대만에 대한 군사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 대만군은 중국군과의 전통적인 소모전에 초점을 맞춰 F-16 전투기, 에이브러햄 전차, 스텔스 대함 미사일함과 잠수함 등을 도입하고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함
- 미국은 1950년 이후 대만에 500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를 판매(FMS)했으며, F-16 조종사 훈련 등 양국 군의 상호 운용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만 대만은 중국의 도발에 직접 대응을 자제하며 긴장 완화를 목표로 중국군의 위협에 추적·감시로 대응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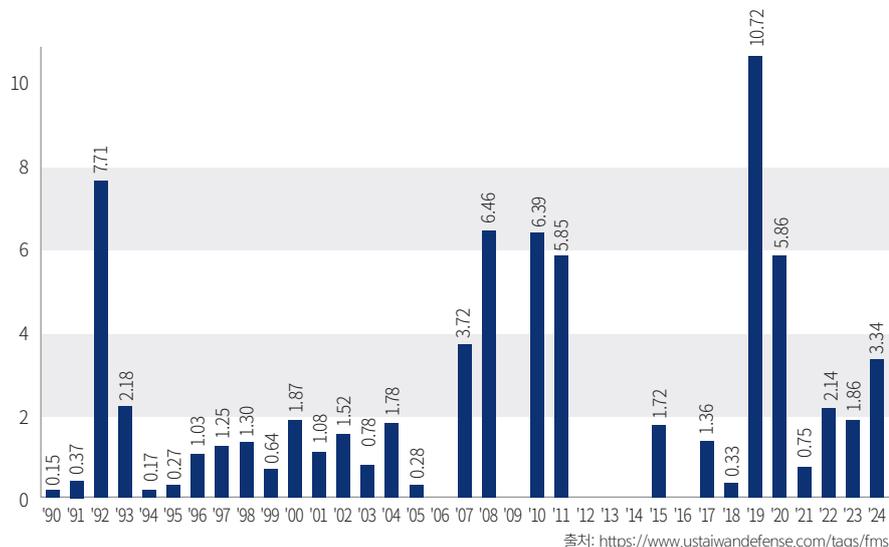


중국의 회색지대/하이브리드 전술

- 중국은 비군사적 수단으로 대만을 교란하는 회색지대 전술도 전개하고 있음
- 특히 '중양대만상대영도조'를 통한 대만 내 선거 개입, 친중 및 반독립 여론 조성 등의 공작으로 독립 지향 집권 민진당을 유권자로부터 '분리'하려 함
- 대만 해협에서는 중간선 무력화 시도, 방공식별구역 침범 등 제한적인 무력 도발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면서도 관광객과 투자 유치 등 매력공세를 병행함

1990년-2024년 미국 FMS에 따른 대 대만 무기 판매액

(단위: 10억 달러)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비교

구분	중국	대만
총병력(명)	2,035,000	169,000
육군	965,000	94,000
해군	260,000	40,000
공군	395,000	35,000
예비군	510,000	1,657,000
전차(대)	5,400	650
항공기(대)	3,227	504
잠수함(척)	59	4
함정(척)	86	26
방공포(문)	9,834	2,093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614230002728>

3 한반도에 대한 파급효과와 정책 시사점

한반도에 대한 파급효과

- 주변국의 우려 속에 미국은 대만에 대한 맞춤형 집단 억제전략을 전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중국 입장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도발을 감수할 상황은 아님
- 대만 주변 해역에서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과 저강도 해상 봉쇄는 예상할 수 있는바,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 태세 확립이 필요함
- 중국의 영향을 받아 북한도 회색지대/하이브리드 전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대만 해협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며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있지만, 대만 위기가 북한의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계해야 함

중국의 한반도 인근 기정사실화 전술에 대한 대응

-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와 같이 중간선 무력화, 방공식별구역 침범, 해상 봉쇄 위협, 사이버 공작 등과 같은 회색지대 조치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음
- 특히 해양 경계획정을 지연시키면서 동경 124도를 양국 간 사실상의 해양 경계로 강요해 서해상 70% 이상 수역을 내해화 하려는 야심을 내비치고 있음
- 서해상중첩수역은 양국어업협정에 따라 잠정조치수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적 대응이 계속되는 것도 기정사실화 전술의 하나임
- 중국은 불법조업을 묵인해 한국의 해양 관할권을 약화시키면서도 유화적 제안(공동 법 집행, 경비작전, 무비자 입국 등) 등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함
-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관할권 강화와 동시에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출처: <https://www.chosun.com/OWKQX5A65BFTLBSANUJWLSLBE/>



출처: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2/08/17/5VV726KOWREBFJ0257HO2UXTAY/>